

드림꽃편지 637

2022.2.4. 입춘호

<https://cyw.pe.kr> 햇별같은이야기

내공과 외공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중국 여행중 장수성 어느 관광지에서 칼로 바위를 쪼갰다는 '시검석'을 봤습니다. 진짜인지 재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바위가 매끄럽게 잘려있었습니다.

중국 검술의 맨 마지막 고수의 단계가 칼로 바위를 쪼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지는 기술(외공)로는 안 되고 '내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술 세계에도 외공과 내공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외공 신앙'과 '내공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가지 은사를 '외공'에 비유할 수 있고, 성령의 열두가지 열매를 '내공'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육체에 부여되는 초월적 능력이기 때문에 '육체의 영성'이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영혼에 부여되는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에 '영혼의 영성'입니다.

성경엔 다소 이해되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마7:21-마7:22)

저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한동안 이 말씀 때문에 매우 심각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외공 신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외공 신앙은 그 사람에게 다소 인격적인 부족함이 있더라도 '기능'으로서 임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신앙이 외공에 머물러 버리면 신앙이 삶의 도구가 되어버리니 반드시 '내공 신앙'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내면의 종교입니다.

♥신앙의 내공을 부지런히 연마하고 있는 최용우 올립니다.



▶막아걸을 시험했다는 시검석. 바위가 너무나 깨끗하게 갈려있어 조금은 의심스럽다.

大慈
大悲



하나님은 대자대비하신 분
글씨 / 이오

나무, 나무, 나무들

허공을 딛고 서서
수많은 팔과
길고 흰 손가락으로
지구를 감싸며
떠받들고 있구나!

나무, 나무, 나무들.
나무 같은 사람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 28

2015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에 1년 내내 항암을 받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계속 토하고 구역질과 어지러움 등 항암의 온갖 후유증으로 인하여 한 걸음조차 걸을 수 없고 음식은 커녕 미음조차 넣을 수 없는 어려움에 헤메일 때 오직 한가지 소망은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누워서 사모할 때 비몽사몽간에 멀리서 은은한 찬양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정말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앞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나의 온몸에 흘러 내렸습니다. 또 부르고 또 따라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10:9)”

주일 설교의 말씀이자 신앙고백이었고 회개와 동시에 저의 삶의 비전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고 그 뜻을 행하려고 그 모진 대장암 가운데서 살려 주셨습니다.

목회를 끝내고 어쩔 수 없는 생활을 위하여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불과 5년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완치판결은 아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평화가 이뤄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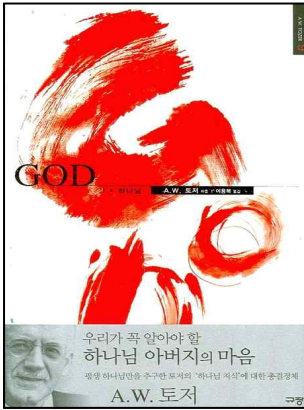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GOD하나님



토저 마이티 시리즈 9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487쪽 19,000원 규장 2008

하나님의 성품을 20가지로 나눈다. 완전성을 갖추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또한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지혜로우시고, 주권적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1. 완전한 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제한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지식도, 지혜도 무한합니다. 거룩함도, 사랑도, 자비도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득 차신 분이요,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요, 모든 면에서 가능한 최고의 수준에 오른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2. 무한한 분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측정되거나 측량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공간, 거리를 그분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것들을 모두 만드셨고, 그분의 마음 안에 품고 계시며, 아예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무한함을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3. 한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파스칼은 “우리는 광대(光大)와 극미(極微)의 중간쯤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 태양계를 벗어나 은하계를 벗어나 갤럭시를 벗어나고 벗어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반대로 세포 안에 원자가 있고 원자 안에 분자가 있고 분자 안에 또 다른 작은 세계가 있고 또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4. 선한 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불완전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심기가 불편하고 해서 그분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친절하고 인정이 많으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5. 거룩한 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털끝만큼도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더러움이나 죄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상과 암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나팔소리, 음성, 불과 연기, 흔들림 같은 것들로 보여줍니다.

6.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公義)는 도덕적으로 공평하다는 의미입니다. (겔18:25) 공평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자격도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터 놓으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7. 자비로운 분

하나님은 자비(慈悲)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은 엄격한 율법을 가르치지만 신약은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드러낸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오히려 '자비'라는 단어가 구약에 네 배 이상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8. 은혜로운 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를 상대하는 것을 자비(慈悲)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결점을 상대하는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보다 은혜에 대해 세배 이상 더 많이 나옵니다.

9. 무소부재한 분

하나님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한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 곁에, 내 곁에 계십니다. CC-TV를 피해 숨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은 적어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10. 내재하는 분

하나님은 내재(內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萬有)를 담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만유에 침투하십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 빠진 양동이는 바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동이 안에는 바다가 가득 담겨있습니다. 즉 바다가 양동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도 내 안에 있다는 가장 멋진 비유입니다.

11. 자존하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自存)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사람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 이다'라는 뜻의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영어성경은 항상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GOD 이라는 이름도 항상 대문자로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를 하는 것이 규칙이 되었습니다.

12. 초월적인 분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그분과 이성적인 것 사이의 간격은 그분과 물질적인 것들 사이의 간격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본질은 우주에서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분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심연(深淵)이 놓여 있습니다.

13. 영원한 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왕, 대통령, 사업가, 설교자, 당회, 집사 이런 존재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역사가 없었던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는 분'(사57:15)이라고 하십니다.

14. 전능한 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한'이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분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절대적으로 풍부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용해도 줄지 않습니다.

15. 변치 않는 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에게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변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약1:17) 그분은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말3:6) 그래서 하나님께는 더 큰, 더 작은, 뒤로, 앞으로, 아래로, 위로, 같은 말이 사용될 수 없습니다.

16.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전혀 공부하지도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즉시 완전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속이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17. 지혜로운 분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지혜란 가장 완전한 수단에 의해 가장 완전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고상하고 거룩하며 사랑과 순수함으로 충만하며, 간사함이나 교활함이 전혀 없습니다.

18. 주권적인 분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께 강제로 무엇을 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19. 성실한 분

하나님은 성실(신실)한 분이십니다.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거스르는 존재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속성이요 그분 자신을 거슬러 행동할 수도 없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누구도 모방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며 표준입니다.

20.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독서일기 ©최용우

일주일 찬양

월요일은 원래 찬양하는 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요일은 화끈하게 찬양하는 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일은 수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요일은 금방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토요일은 토실토실 찬양하는 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은 죽도록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용우 제5시집<찬양하라 내영혼아>中



[덧글]

오승리 /죽도록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날..
죽도록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날..
하하 웃음이 막 나와요.
죽도록 찬양하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최용우 /저도 죽도록 찬양하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이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192. 텔루스

텔루스는 대지의 모신(母神)으로도 불린다. 이 여신은 평평한 원형의 대지이기도 한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작은 복을 지니고 있다. 또 지상의 도시를 나타내기 위해 머리에 탑을 얹고 있다. 거세당한 갈루스라 불리는 신관들이 이 여신을 시중 들게 된 까닭은 종(정)자가 없는 자는 대지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함을 나타낸다고 한다. 텔루스 신의 종교의식에서는 남근을 자르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갈루스들이 여성으로 바뀌지도 않고 남자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다.

193. 아티스

텔루스의 애인인 아티스는 꽃의 남신인데 꽃은 열매를 맺기 전에 떨어진다고 하여 스스로 거세한 남신이다. 그렇다면 꽃이 나타내는 것은 아티스라는 남자의 존재가 아니라 그의 남근이라는 얘기가 된다. 떨어진 것은 남근뿐이었다.

194. 갈루스

바로는 남성과 여성이 지닌 수치심을 모두 내팽개치고 대지 모신에게 몸을 바친 '갈루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도 머리카락에 잔뜩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정숙하지 않은 차림으로 여자처럼 걸 으면서 카르타고 광장과 그 주변을 돌아다닐 뿐 아니라,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목숨을 이어가기 위한 양식을 얻고자 곤잘 구걸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갈루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말문이 막힐 뿐이다.

195. 국가적 신화와 마귀의 관계

세계를 이루는 어떤 원소, 또는 어떤 피조물적인 영이, 그것이 특별히 부정하고 사악한 것이 아니라 해도 참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성전과 성직자, 제물으로써 대신 떠맡들어진다면 죄가 된다. 그 까닭은, 제사 때 쓰이는 수단들이 올바르지 않아서 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제사와 예배는 본디 바쳐져야 하는 참된 하나님을 숭배할 때만 드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

하나님의 자녀



1.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한마디로 예수와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 아내와 만났지 4개월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후 28년이나 함께 살았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뜻입니다. 작은딸이 다녔던 고등학교에 장관의 ‘딸’이 같이 다녔었는데,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그녀가 장관은 아닌데도 그녀를 항상 ‘장관’처럼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극을 보면 왕의 아들은 왕자답게, 공주는 공주답게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냉소적으로 비칠만한 일들이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서 종종 벌어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사라지는 않습니다. 언론 뉴스를 통해 재벌 자녀들의 일탈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의

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실감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7131)

2.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1:12)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조물주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도 ‘절대자’의 존재를 믿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정한수 떠 놓고 절대자인 ‘천지신명’께 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떤 형체가 없기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말도 교파마다 교단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져보고 말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알듯 말 듯 모호합니다.

대체적으로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heart), 영혼(mind), 양심(conscience), 그리고 육체, 육신(flesh) 지성의(知情意)로 알아가는 것을 ‘전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롬10:17-18)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전(도)해야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앎)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7132)

3.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눈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기록한 고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여긴 겁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의 특징은 일종의 율법 패러다임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

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 실천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티하는 이유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성경’으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특징은 일종의 성경 패러다임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한 ‘율법 준수’는 엄청나게 철저합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구속사’ 진영의 사람들이 선택한 ‘말씀 준수’는 부끄러울 정도로 허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으로 선택한 ‘율법 준수’를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성경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7133)

4.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신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유대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고 ‘성경을 믿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근본주의 기독교는 예수님도 성경을 믿어야 진짜 예수라고 할 만큼 성경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이성의 눈이나, 이해력의 눈이나, 지혜의 눈이나,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주 안에 드러나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일종의 추론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체에서 눈이 보는 것은 그것을 만든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예술적 솜씨를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회자된 것은 당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세례 요한의 공이 큼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요1:15)라고 하자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에게로 쏠렸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요14:9)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7134)

5.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8) 개정개역 성경은 번역이 좀 애매모호하지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에 알 수 없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이다. 저분을 보니 하나님을 뵈은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능력은 사랑이기도 하고 대자대비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자신 있게 증언한 것입니다.(요1:12) 그리고 지난 2천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또 2천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4.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실존’을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7135)

6.은혜와 진리의 충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예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것을 본 것입니다.

루이스 벨코프는 “은혜란 신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방법이다. 즉, 은혜란 단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총일 뿐 아니라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는 한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성숙시키는 방

범이며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眞理)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나 금이 비싼 이유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던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7136)

7. 하나님만 집중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권위,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앞세운 채 거들먹거리려도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허풍을 떨어도 되나요? 심지어 부자가 되었다거나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인생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 특권이란 무엇일까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세상사에 산만해질대로 산만해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근사한 것인지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저 막연합니다. 목회자들도 분주한 목회 일정에 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서해안에 있는 어느 ‘천주교 성지’에 간 적이 있었는데, 12시가 되자 어디선가 나타나 성소 안에서 홀로 오랫동안 기도를 하던 늙은 수녀의 모습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관광지라서 한 바퀴 다 돌고 올 때까지도 같은 자세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모습이 참 기록해 보이고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영적 축수를 맞출 때만 나오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동(會同)하셔서 만나주시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권세를 올해는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7137)

2. 진정한 내공 쉐카이나

신앙의 '외공'인 성령의 은사는 육체에 부여되는데, 때로는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든자가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권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유사 기독교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끌고갑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은 외적인 '육체의 영성'에는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진정한 '영혼의 영성' 곧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가 나타나며, 이런 영성이 '내공의 영성'입니다.

'쉐카이나'는 '머물다, 거주하다'를 뜻하는 'Shakan'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지성소 속죄소의 그룹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신자 개개인 안과 그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구약의 영광보다 훨씬 능가하는 신약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너희 안의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난 그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믿는 자를 향한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는 그곳에 흐르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의 흐름, 빛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내공 신앙'입니다. 은사 중심의 '외적 신앙'이 강한 쇠라면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내적 신앙'은 부드러운 숨입니다. (7139)

3. 거룩함이 내공이다

산책을 하면서 하늘이 맑고 흰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하늘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의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위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대하5:13)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유일 뿐 실제로는 어떤 말이나 언어로도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온전하고 순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임재인

데, 왜냐하면 임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잘못된 불로 여호와께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태워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거짓으로 흉내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을 모아서 싸그리 태워버리십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보면 모아서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뜨거운 불구덩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삶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 친밀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쉼카이나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렇고 그런 이름뿐인 신앙인으로 머무를 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12:14) 거룩함이 능력이고 거룩함이 내공입니다. (7140)

4. 거룩하게 살려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이 약속한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치여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거나 일주일에 주일 낮 반쪽 드리는 한 번의 예배로는 말씀대로 온전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란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에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기쁨의 불과 희락의 불과 능력의 불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빛나게 되겠죠.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에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 쉼카이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소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둡고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소금은 썩지 않고, 빛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마5:13-16)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소금과 빛같은 착한 행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과 거룩한 삶’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지 않아야 ‘내공’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내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의지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술의 고단자들이 어디 쉽게 됩니까? (7141) ©최용우



장독대 (사진:최용우)

여유롭게 천천히

올해는 어떻게 살까? 한해의 일기장 제목에 그것을 담아내는데 처음에는 '대충 살자' 해서 '대충일기'라 정했다가 대충 살면 안 될 것 같아 '여유일기'라 정했다. 올해는 주변도 좀 돌아보고 천천히 살아보자. '천천일기'라 할까?

해마다 1월 1일 첫 사진은 마당의 장독대 사진을 찍는데 장독대의 주인이신 응이 할머니가 힘이 부치신가 거의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다. 현관문과 가까운 포도나무 아래 제2의 장독대 지점을 만들어서 웬만한 것은 가까운 곳에 두시고 먹는 이유도 있다.

신년 산행으로 계룡산 오르려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장모님을 모시고 떡국으로 점심을 먹자고 약속을 잡아버렸다. 그래서 처가에 달려가 장모님을 잘 섬기고 돌아왔다. 이쁜 딸을 내주셨으니 잘 섬겨야지. 산에는 다음에 가도 된다.

카페에서

작은딸 밝은이가 엄마 보고 싶어서 내려왔다가 집에만 있는 것이 좀이 쭈신지 엄마에게 붙어서 어디든 나가자고 조른다.

주일 오후에 여유롭게 넷플릭스 영화한편 보다가 한숨 자려던 엄마가 “에이~그래” 하면서 주섬주섬 옷을 입는다. 자식 이기는 엄마 없지...

어디든 멋진 카페에 가자 하며 이번에는 나를 쳐다본다. 나는 단 1초만에 “아라씨. 운전 해줄게” 딸 이기는 아빠 없지...

대전 쪽으로 나가다가 구암사 입구에 ‘예이제’라는 한옥 카페에 갔다.

“어? 옛날에 칼국수 음식점이었는데 언제 카페로 바뀌었대?”

예이제에서 밝은이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라는 ‘크로플’을 주문했다. 참 희한한 신문물을 경험하면서 신기해하는 옛날 엄마 옛날 아빠...

“그런데 너무 달아서 두 번은 못 먹겠다야.”

그렇게 두어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적 치유 시간이었다.



황금 잉어빵

면사무소 뒤쪽에서 황금잉어빵을 파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다. 원래 그 자리에서 붕어빵을 팔던 분은 정류장 쪽으로 옮겼고 옮겨올에 처음 뵈는 분이다. 운동을 하면서 천원에 세 마리 주는 붕어빵을 사서 먹는 맛이 진짜... 팔 맛이다.

오늘은 붕어빵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원래 어느 아파트 단지 앞에서 팔았는데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가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난리를 쳐서 조치원역 앞으로 옮겼는데, 민원신고가 들어가 며칠 해보지도 못하고 장사할 곳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 여기서도 민원이 들어가면 장사 못한단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붕어빵을 팔면 아파트값이 떨어지나요?”

“몰루죠. 그건, 그냥 비싼 아파트에서 산다고 유세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아파트가 참 허접하게 생각되네요.”



내어쫓으라

“이 무익한 증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갹이 잇으리라.”(마25:30) 바깥으로 내어 쫓긴 길고양이 ‘꼬맹이’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계속 ‘냐옹~ 냐옹~’ 슬피 운다.

아침저녁으로 밥먹으러만 오는 길고양이를 측은지심이 많은 아내가 겨울이라 춥다고 현관까지 들어와서 먹고 나가라고 나를 배려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녀석이 밥을 먹다 말고 판짓을 한다.

쓰레기봉투를 뒤진다던가 현관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건드린다. 밥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얌전하게 밥만 먹다가도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면 슬금슬금 움직인다.

“얏!” 아내가 소리를 지르기에 뭘 일인가 뛰어갔더니 또 밥먹다 말고 비닐봉지를 뒤지다 걸려서 아내가 고양이를 번쩍 들어 밖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아내 생일

오늘은 아내의 생일 기념일이다. 엄마 생일이라고 어젯밤에 아이들도 서울에서 내려왔다. 점심때 케익에 촛불을 켜고 조출한 기념식을 했고, 오늘은 우리집에서 일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니 가장 근사한 곳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온 식구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끝에 반석동에 있는 ‘꽃마름’이라는 샤브샤브 식당에 가기로 했다. 그런데 좋은이가 배탈이 나서 드러 누워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셋이서 갔다.

나는 이제 식단이 바뀌어 채식 위주로 먹었다. 예전 같으면 가장 먼저 달려갔을 고기, 치킨, 튀김 요리 코너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먹으면 손해(?)라는 말에도 그냥 토끼처럼 얌전하게 풀만 냐냐 먹었다.

어쨌든 아내도 만족스러워하고 밝은이도 음식의 퀄리티가 서울보다 좋다 하고.. 모두 만족했으면 된거지.



세종수목원

서울에 사는 좋은이가 세종수목원이 괜찮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가보자 해서 점심 먹고 온 식구들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세종수목원에 갔다. 나는 이미 가보았지만 다른 식구들은 처음이다.

겨울이라 밖은 황량한 별판이어서 별로 볼 것이 없고 오늘은 수목원 안에 있는 '세계절전시온실'에만 갔다. 입장료는 세종 시민은 2500원 타지역 사람은 5000원이다.

붓꽃의 꽃잎을 형상화해 다자인한 온실은 '지중해식물관'과 '열대식물관'과 계절마다 '기획전시회'를 하는 세 공간이 붙어 있었다. 겨울임에도 후끈후끈한 온도의 열대식물관에는 처음 보는 신기한 꽃들이 많이 피어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밀려다니느라 꽃사진을 많이 못 찍었다. 오늘은 식구들과 함께 온 것에 의미를 두고, 평일에 다시 가서 천천히 돌며 사진을 많이 찍어야겠다.



쉬어가세요

대전에서 내려오는 대청호 물길과 충북에서 내려오는 미호천 물길이 합쳐져 금강이 되는 '합강'은 우리나라 5대 철새 도래지이다.

오늘은 산책을 하는데 어디선가 엄청난 '꺼룩 꺼룩 꺼룩.....'소리가 들려왔다. 수백마리의 '기러기'들이 눈 가운데 내려앉아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합창하고 있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중인지는 모르지만 일제히 한쪽 방향으로 앉아서 쉬고 있는 기러기들의 모습이 장관이었다. 뒤쳐져 날아오던 기러기들이 뒤쪽으로 계속 내려앉았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지 아니면 뒤쳐진 기러기들을 기다려 준 것인지 그건 모르겠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가다가 쉬고 또 가다가 쉬곤 했겠지? 기러기들도 대장이 있어 지휘를 한다고 하던데 저 중에 누가 모세 기러기일까?



쥬라기공원

한파주의보 내려진 날, 체감온도가 엄청 낮아서 운동을 할 엄두가 안 났다. 고민을 하다가 며칠 전에 세종수목원 열대온실에서 땀을 흘린 것이 생각났다. “여보, 우리 세종수목원 온실에 가서 몇 바퀴 돌아. 그러면 따뜻한 곳에서 운동도 되고 사진도 찍고...”



아내와 추위를 뚫고 수목원 열대온실로 달려갔다. 지난번엔 관람객들이 너무 많아 떠밀려 다니느라 제대로 사진도 못 찍었는데 오늘은 천천히 돌며 사진을 150장이나 찍었다.

“와~~!! 쥬라기공원에 온 것 같다.”

한 아이가 열대온실의 거대한 나무들과 신기한 꽃들을 보면서 소리친다. 그리고 보니 진짜 내가 지금 아프리카 밀림 속에 온 것 같다. 가장 최근에 만든 식물원이라 확실히 다른 수목원과 차별화를 하려고 한 흔적이 역력하다.

소장파

책 좋아하는 사람은 당장 안 읽어도 일단 필이 꽃히는 책은 구입하고 본다. 일명 소장파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돈도 없고 해서 소장파는 아니지만 아고고.. 그때 살걸.. 사야 될 책을 놓치고 후회할 때가 많다. 책도 수명이 있어서 눈에 떨 때 안 사면 그만임.



내 책방에는 책꽂이에 꽂혀 보지도 못한 책들이 그냥 구석에 쌓여 있다. 장모님이 내 책방을 보더니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놀라셨다. 나도 심각성을 깨닫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박스씩 빼내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만 그게 잘 안된다.

방은 좁은데, 책은 자꾸 늘어나니... 진짜 책장에 들어갈 만큼만 남기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이 결심이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다. 나는 왜 책을 못 버릴까? 책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536회 우산봉-흔적골산-길마재산

신년 산행으로 계룡산에 오르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많아서 망설이다가 우산봉 오르기로 하였다. 오랫동안 655번 버스를 타고 가서 '구암사'입구 정류장에서 내려 산을 올랐다. 날씨는 화창하였고 평일인데도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

구암사-흔적골산-우산봉-안산산성-길마재산-안산동 119번 버스종점까지 약 7km 거리를 2시간 30분 동안 걸었다.



대전둘레산길 구간이라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걸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없어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떨어져 걸어야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수 없지.

안산동 정류장에 막 도착하려고 하는데 집으로 가는 655번 버스가 눈앞으로 휘 지나가버려서 할 수 없이 대전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반석까지 나가 1000번을 타고 집에 오니 오후 6시이다. 모두 4시간 걸렸다. (2022.1.6. 홀로산행)

▲제537회 비학산226 (일출봉252m) 2022.1.15

▲제538회 비학산227 (일출봉252m) 2022.1.21

▲제539회 비학산228 (일출봉252m)

설 연휴 둘째 날, 서울에서 큰딸 좋은이와 작은딸 밝은이가 집에 오니. 갑자기 집안에 활기가 넘친다. 카페를 가자니 빵집을 가자니 요란하다가 다들 빵집으로 몰려갔다. 나도 따라갈까 하다가 이번 주엔 너무 바빠서 산행을 못한 것이 생각나 나는 그 틈에 얼른 비학산 일출봉에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왔다.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1시간 10분 정도 걸렸다. (2022.1.30)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씨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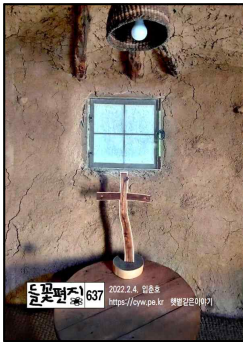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입춘(立春) -아직 추운데 벌써 봄이라고 하네요

24절기의 첫 번째인 입춘입니다. 입춘이 되면 새봄을 맞이하는 뜻으로 대문에 '입춘방'을 붙입니다. 주로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을 많이 붙이는데 최근 토박이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한자 말이 아닌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입춘방을 쓰자는 운동을 하더군요. 입춘을 봄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들봄', '건양'은 '널리 퍼지는 따뜻한 봄별'이라고 하여 '한별'으로 바꿔 <들봄한별 기쁨가득> 또 한 서예가는 <새봄 큰 기운 좋은 일 가득>을 쓰자고 합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인우재



이번호 표지사진도 지난달에 이어 한희철 목사님 페이스 북에서 가져왔습니다. 강원도 단강에 있는 흙집 <인우재>의 마당에 있는 기도실입니다.

돌과 흙으로 지은 둥근 모양의 기도실인데 햇살 좋은 날 가만히 들어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봉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은은한 별이 참 따스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우재(隣愚齋)>는 어리석음과 벗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집 당호도<인우재(仁雨齋)>인데 '인숙이와 용우가 사는 집'이란 뜻입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재판 <맛있는주보> <멋있는주보> <품나는주보> <탐나는주보> 4권 발행

각권 220쪽(컬러) 14000원

57.겨울목상 - 218쪽 13,900원(올컬러) -12월27일 발행!

56.들꽃편지2권 썩부쟁이꽃호 - 504쪽 21,200원 -11월30일 출간

55.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예동) - 326쪽 14,600원 -11월5일 출간

54.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2 -398쪽 17,300원 -10월15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44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2.1월 재정결산

2022년 1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2 오창근 옥치오 이신자
이재익 이진우 장기갑 정옥진 정효숙 주명혁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현수동
황성운 구글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지난달에는 모두 29분이 1,417,304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2.2.5일 현재 7153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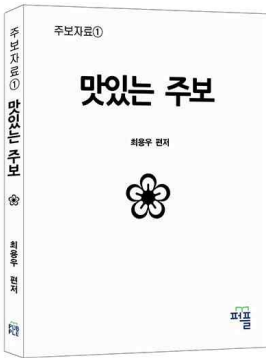
③도서출판 -그동안 57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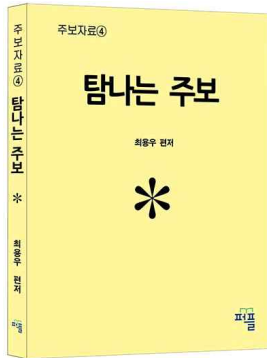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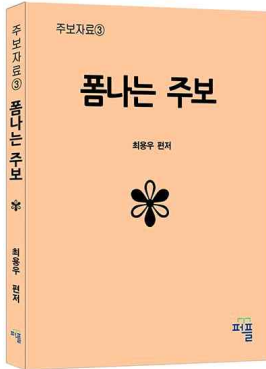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
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재판 새 편집 컬러

1월에 4권이 나왔습니다.
1주일에 1권씩 나옵니다.



1권 맛있는 주보+파일
2권 멋있는 주보+파일
3권 폼나는 주보+파일
4권 탐나는 주보+파일

최용우 편저
각권 220쪽
14000원(컬러) 교보 퍼플

저는 지난 10년 동안 1년에 1권씩 주보자료집, 주보파일을 만들어서 1천여곳의 한국 교회에 제공했습니다. 아직도 연말이 되면 주보자료집을 찾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으로부터 자기는 10권을 다 사용할테니 앞으로도 계속 주보자료집을 판매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나 노트북에는 CD가 없습니다. USB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주보자료파일을 CD에 구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자료집을 교보문고를 통해 출판하고 자료 파일은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책 안에 넣어서 다운 받게 하는 방법으로 책을 계속 유지시키겠습니다.

주보자료집을 찾는 교회가 있다면 책을 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만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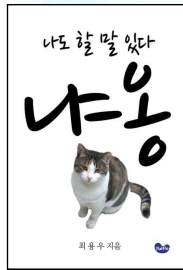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용우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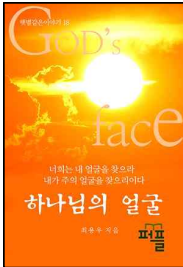
인생 최대의 행복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누리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참된 신앙생활 비법 전수. 280편의 신앙생활 글 모음 11,800원 316쪽 펴플



나도 할 말 있다 나용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만약 내 생애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처럼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285편의 새로운 생활 글 11,900원 318쪽 펴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288편의 깊은 영성 글모음 12,100원 326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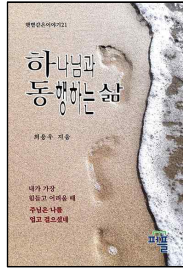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일년동안 쓴 글 288편의 예수 동행글 모음 12,200원 328쪽 펴플



예수 나의 형통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무조건 형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288편의 예수 형통 글 모음 12,300원 328쪽 펴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때 주님은 나를 업고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네. 288편의 하나님과 동행 글 모음 14,300원 320쪽 펴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214-21-0389-661 농협138-02-048495 하나은행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37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